



문서번호	질병예방과-4013
결재일자	2015.4.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생명건강팀장	질병예방과장	보건소장		
장말례	김연화	한경숙	04/13 代정주섭		
협 조					

2015년 제1차 보건·복지 자살예방사업 TF팀회의 결과보고

질병예방과 - 3478(2015. 3. 31.)호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구청 내 보건·복지 관련 부서로 구성된 “자살예방사업 TF-Team 회의”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I 회의개요

- 일 시: 2015. 3. 31.(화) 16:00~17:00
- 장 소: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
- 참 석: 총 17명
 - TF팀장(보건소장), 질병예방과장
 - 팀 원: 여성정책팀장외 15명(붙임문서 참조)
- 주요안건
 - 2014년 상반기 자살예방사업 평가 및 2015년도 자살예방사업 방향 논의 등
 - 기타 부서별 협조 및 연계 사항 등

II

회의순서

- 인사말 - 팀장(보건소장)
- 참석자 소개 -사회자(생명건강팀장)
- 자살예방사업 보고(발표자: 이정임 자살예방센터팀장)
 - 2014년 사업평가 및 2015년도 사업방향, 협력방안 등(붙임: PPT자료)
- 주요안건 논의
- 공지사향

III

회의 주요내용

발언	제언 및 질의	대책방안 및 답변
노인복지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0명의 노노케어 활동자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. - 지킴이 교육을 복지관련 공무원 뿐아니라 전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. 	심폐소생술 교육이 정례화 된 것처럼 자살예방지킴이교육도 전 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정례화 하는 것은 좋은 의견임.
방문보건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마을복지센터 간호사가 사용할 65세 기초건강 면접조사에 우울에 관한 추가내용에 대해 물음 	생명건강팀장님과 추후 논의 필요
회장(보건소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살고위험자로 노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. 자살시도자와 유가족 관리를 위해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하다.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저해요인과, 전수가 보건소로 연계되는지 물음. 	
송정동 주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송정동은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 의뢰 시에도 방문 오는게 힘들. - 통장을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지만 자살고위험자를 동주민센터에 알릴 경우는 아주 급박한 경우이다. - 노노케어 활동자의 나이가 많은데 마음이음친구 활동(말 벗 서비스)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. - 알코올 문제로 의뢰 시 교통과 거리문제로 약속잡기도 오기도 힘들. 봉사자도 오기 힘들다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노케어와 보건소의 마음이음친구는 혼란이 있으나 다른 성격임. - 용답동과 송정동은 원거리, 교통불편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비스도 잘 안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. - 통장의 자살예방교육도 반복 교육으로 자살고위험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.

IV

관련사진



2014년 자살예방사업 보고 및 2015년 사업 방향 발표



주요안건 논의

- 붙임 1. TF팀 회의록 1부.
2. TF팀 회의자료(PPT) 1부.
3. 참석자 명단 1부. 끝.

보고자 직

성명 장말례

성동구청장 귀하